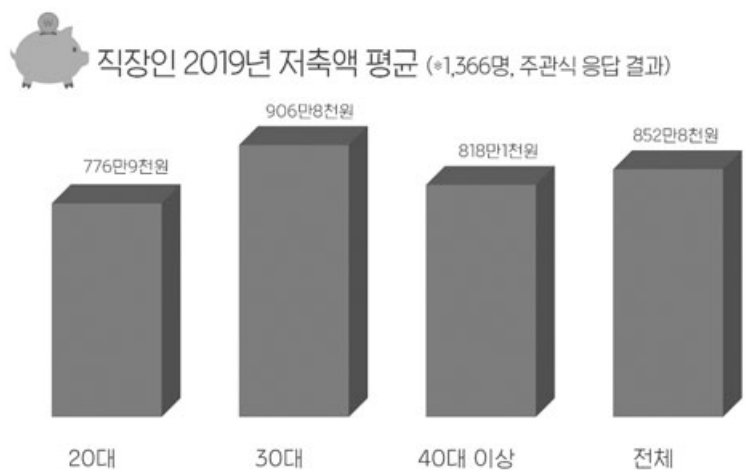


지난해 직장인 60% 저축...약 853만원

20대 가장 가장 높은 저축률...그러나 가장 낮은 저축액

저축 못한 이유 30·40대 '대출금'·20대 '카드값' 꼽아



JOBKOREA × albamon

직장인 5명 중 3명이 지난해 평균 852만8000원을 저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을 하지 못한 30대와 40대 이상 직장인은 대출금, 20대 직장인은 카드값과 생활비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잡코리아는 알바몬과 함께 1월 29일~2월10일 직장인 2112명을 대상으로 '2019년 저축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지'를 묻는 질문에 64.7%(1366명)가 '저축을 했다'고 답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저축을 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20대가 75.3%(324명)으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62.8%(659명), 40대 이상이 60.5%(383명)이었다. 다만 총 저축액은 20대가 가장 적었다. 지난해 저축을 한 20대 직장인의 저축 총액은 평균 776만9000원이었으나 40대 이상은 평균 818만1000원이었다. 30대의 경우 평균 906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결혼 여부에 따라서는 기혼자가 평균 923만7000원으로, 미혼 803만4000원보다 많았다. 이전과 지난해의 저축액 변화를 질문한 결과 40.1%(548명)는 '별 변화가 없었다'고 답했다. '저축을 늘렸다'는 응답은 31.5%(430명), '줄였다'는 응답은 28.4%(388명)였다. 20대의 경우 '늘렸다'가

39.2%(127명)로 '줄였다' (17.6%, 57명)보다 2배 이상 높았으나, 40대 이상은 '줄였다'가 34.5%(132명)로 '늘렸다' (19.8%, 76명)보다 높았다.

저축 방식을 살펴보면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했다'는 응답이 52.2%(713명)로 가장 많았다. '금액은 들쭉날쭉했지만 매달 꾸준히 저축했다'는 응답은 28.8%(394명), '비정기적으로 상황에 따라 저축했다'는 응답은 19.0%(259명)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저축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답한 직장인은 35.3%(746명)였으며, 대출금을 이유로 꼽은 응답이 42.5%(317명)로 가장 많았다. 카드값과 생활비를 쓰면 남는 돈이 없다'는 응답이 40.8%(304명)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저축하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40대 이상과 30대는 '대출금'을 각각 54.4%(136명), 44.6%(174명)로 가장 많이 들었으며, 20대의 63.2%(67명)는 카드값과 생활비를 꼽았다.

뉴스1



갤럭시 Z 플립 제품 세부 사양

메인 디스플레이	6.7형(170.1mm) FHD+ 다이내믹 아몰레드 디스플레이(21.9:9)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 2636 x 1080
커버	1.1형(26.79mm) 슈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300 x 112
전면 카메라	1,000만 화소(F2.4)
후면 카메라	1,200만 화소 초광각(F2.2) 1,200만 화소 광각(F1.8)
접었을 때	73.6 x 87.4 x 15.4~17.3mm
펼쳤을 때	73.6 x 167.3 x 6.9~7.2mm
무게	183g
CPU	7nm 64-bit 옥타코어 프로세서(최대 2.95GHz + 2.41GHz + 1.78GHz)
메모리	8GB RAM, 256GB 내장 메모리
배터리 (typical)	3,300mAh 듀얼 배터리
네트워크*	Enhanced 2X2 MIMO, 5CA, LTE Cat. 16 - Up to 1.0Gbps Download / Up to 150Mbps Upload

*실제 사용 환경에서 다를 수 있음.

이통3사, 갤럭시 플립 내일 정식 출시

"갤폴드 '한정판매'와 달리 원하는대로 구매 가능"

삼성전자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한 두번째 접이식(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플립'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오는 14일 국내 시장에 전격 출시한다. 국내에서는 스미러 퍼플(Mirror Purple) 스미러 블랙(Mirror Black) 등 2가지 색상으로 출시되며 가격은 165만원이다.

간단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경우 1주~2주간 '예약판매'를 거쳤던 것과 달리 14일 출시에는 예약판매가 아닌 공식 출시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예약판매 없이 출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14일 전국의 이동통신 대리점과 각 통신사별 온라인 쇼핑몰,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 및 모바일스토어 등에서 갤럭시 Z 플립을 현장 구입할 수 있다. 갤럭시 Z 플립에 대한 이통3사의 기대도 남다르다. 지난해 출시된 삼성전자의 첫번째 폴더블 폰 '갤럭시 폴드'의 경우 230만 원대 출고가에 '한정수량'으로 공급되면서 판매가 다소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갤럭시 Z 플립의 경우 출고가가 165만원이기 때문에 갤럭시 폴드보다 판매량이 더 높을 것으로 이통사들은 기대하고 있다. SK텔레콤 고위관계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은 지난해 한차례 '제품 결함 소동'을 겪었던 갤럭시 폴드와 비교할 때 제품 완성도가 높다고 판단된다"면서 "LTE모듈로 출시돼 출고가가 갤럭시 폴드보다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도 "이번에 예약없이 곧바로 공식 출시를 하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패를 한 이후 전세계 미디어의 관심이 집중됐을 때 곧바로 제품 판매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LTE 모듈 중에서 프리미엄 모델 라인업이 빈약한 상황이기에 때문에 갤럭시 Z 플립이 이를 공략하기에 적절한 제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애플이 지난해 11월 출시한 LTE 프리미엄 스마트폰 아이폰 11프로의 가격은 최저 139만원

부터 최대 203만원(프로 맥스 512GB)까지 형성돼 있다. 아이폰 11프로를 제외하고 LTE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2월 출시한 갤럭시 S10 정도다.

따라서 갤럭시 Z 플립이 LTE 모델로 출시되면서 '폴더블'이라는 새로운 폼팩터에 갖춰진 때에 맞춰 경쟁력과 최신 기술을 동시에 갖춰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이통사들의 평가다.

갤럭시 Z 플립에 대한 공시지 원금은 14일 판매 직전인 새벽쯤 공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5세대(5G) 이동통신 가입자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통사들의 분위기를 고려할 때 LTE 폰인 갤럭시 Z 플립에 높은 공시 지원금이 실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갤럭시 Z 플립은 17cm(6.7인치) 크기의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으며 가로로 축으로 접히는 조개모양(클램셸)의 폴더블 폰이다. 휴대성과 그림감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초박형 유리(UTG)를 탑재해 기존 폴더블 기기보다 매크로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실현했으며 접힘(힌지) 부분에는 마이크로 커팅 기술을 활용한 하이드어웨이(Hideaway) 기술을 적용했다.

또 삼성전자는 구글과 협업해 상하로 접히는 갤럭시 Z 플립의 독특한 폼팩터에 최적화된 사용성을 제공하는 '플렉스 모드'(Flex mode)를 제공한다.

가로로 축으로 접히는 조개모양의 '클램셸(Clamshell)' 유형의 폴더블 폰이다. 지난해 선보인 전작 갤럭시 폴드는 세로로 접히는 방식이다. 펼쳤을 때 디스플레이 화면비는 22:9. 크기는 17cm(6.7인치)다. 펼친 크기가 태블릿 수준이었던 전작과 달리 '콤팩트'함을 강조한 디자인도 확인할 수 있다.

주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 폴더블 디스플레이 재질은 얇이 빈약한 상황이기에 때문에 갤럭시 Z 플립이 이를 공략하기에 적절한 제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애플이 지난해 11월 출시한 LTE 프리미엄 스마트폰 아이폰 11프로를 2가지로 출시된다.

뉴스1

취업자수 증가했지만 '그냥' 쉬는 사람도 증가해

40~49세 '쉬었음' 전년비 25%↑... 내달 일자리 대책 발표

두달 연속 취업자 증가 수가 50만명을 넘어섰지만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그냥 쉬는'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29세 '청년백수'도 38만명을 넘어서며 1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제

활동인구 중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는 233만6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9.1% 늘었다. 연령계층별 '쉬었음' 인구 증가폭은 40대가 가장 높았으며 규모는 50대가 가장 많았다.

지난달 40~49세 '쉬었음' 인구는 25만5000명으로 7년만에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5

만1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25.0%의 증가폭을 나타냈다.

50~59세 '쉬었음' 인구는 10.2% 증가한 47만800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60대 이상 인구도 101만명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서었다.

또 15~29세 '쉬었음' 인구는 지

난달 5.3% 증가한 38만3000명을 기록하며 통계작성 이후 1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40대에서 '쉬었음' 인구가 크게 늘고 취업자 수도 1년전보다 8만4000명이 줄면서 정부는 내달 40대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40대 고용문제 해소와 제조업 분야 일자리 창출 문제는 반드시 조속히 풀 과제"라며 "정책 대응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주점 1만5000명 등으로 조사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스와 같이 9개월간 유행할 경우 국내 관광산업의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은 각각 6조1000억원과 2조8000억원 줄어든다고, 취업유발인원 감소는 5만56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국제 전염병은 우리 경제를 타격하는 상수(常數)가 됐다"며 "특히 관광산업은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 단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 중의 하나인 만큼, 견고한 방역 시스템 구축을 통해 한국을 '바이러스 청정국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뉴스1

"신종코로나, 메르스 수준 시 관광산업 생산유발액 8.6조원↓"

한경연 "취업유발인원 7만8000여명 감소할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비드·COVID-19) 사태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수준으로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생산유발액이 8조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외국인의 여행수요를 위축시켜 국내 관광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밝

혔다. 한경연은 현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지난 2002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15년 메르스 수준으로 확산된다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각각 125만명과 166만명 감소하고 관광수입은 각각 3조2000억원과 4조6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 같은 관광수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연관효과를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메르스

와 같이 8개월간 유행할 경우 한국 관광산업의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은 각각 8조3600억원과 4조원 감소하고 취업유발인원은 7만8100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업종별 생산·부가가치유발액 감소는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4.1조원·2조원 △숙박서비스 2조원·1조원 △음식점 및 주점 1.6조원·6000억원 등이다.

취업유발인원 감소는 △도소매 및 상품중개서비스 4만500명 △숙박서비스 1만5800명 △음식점 및



깨끗한우리집 만들기

12일 오전 이마트 용산점 일상용품 매장에서 모델들이 각종 위생·청소용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는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깨끗한 우리집 만들기'를 주제로 역대 걸레부터 섬유유연제, 락스, 탈취제, 물걸레 청소포, 주방 세제, 위생 장갑, 위생 롤백 등 대대적인 할인 행사에 나선다.

뉴스1